

배낭여행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

요 약 사 항

- 방 문 기 간 : 2011. 11. 13(일) ~ 11. 19(토) <6박 7일>
- 방 문 국 : 일 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도요타시)
- 방 문 자 : 순천시의회 유혜숙 의원

순 천 시 의 회

배낭여행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

일본 자동차산업의 중심지 나고야시 I. 교육기관을 통한 자동차교육(산업)의 현장을 찾아서

자동차산업 도시로 유명한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하여 학교교육기관(대학)과 현장교육기관(공장)과의 연계로 하여 국가적으로는 일본 자동차산업의 메카가 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로 많은 유입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고야시의 교육과 산업의 접목관계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주 요 일 정

1. 호츠마 인터내셔널 스쿨(Hotsuma International School) 방문 (기후 캠퍼스)

- 호츠마 인터내셔널 스쿨은 일본어학교, 인재파견회사, 도급회사 등을 가진 기업그룹의 하나로서 일본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일본어 교육을 맡아서 하는 교육기관이다.
- 도쿄에 캠퍼스가 하나 있고, 나고야 인근도시 기후시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어 교육기관이다. 기숙사도 완비되어 있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연계하여 진학하는 학교가 졸업생의 희망에 따라 나고야, 오사카, 도쿄 등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한다고 한다.
- 교육커리큘럼을 살펴보니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외국인이다 보니 일본어 습득을 위한 언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틈틈이 과외활동으로 멤버십트레이닝, 리더십트레이닝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진학을 위해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1단계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캠퍼스 전경	기숙사 전경

2. 기후 경제대학 방문 (나고야시에서 철도로 30분거리)

- 기후경제대학은 지역의 지자체, 교육계, 경제계의 강한 요구와 지원을 받아 1967년 기후현 오오가키시에 건립된 대학이다. 40년의 역사를 거쳐 현재는 2개학부와 4개학과에 대학원 및 유학생 별과를 지닌 경제, 경영, 정보, 복지, 공공정책계의 종합대학이 되었다. 기후경제대학은 외국의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1년간의 일본어학습 유학, 4년간의 학부유학, 2년간의 대학원 유학 등 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기후경제대학취업센터	수업시간 모습

3. 중일본자동차단기대학 방문

- 다채로운 실습시설과 풍요로운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중일본자동차단기대학은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에코카로 상징되는 꿈의 자동차를 개발하려는 선진성과 다양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무대로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성을 모토로 설립된 대학이다.
- 학교이름이 말해주듯 실습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일본자동차산업의 메카가 되고 있는 나고야시의 대표적인 자동차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과는 크게 3개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과마다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세분화 되어 있었다.
 - 자동차공학과 : 2급자동차 정비사코스, 에코카 정비코스(3년제), 1급자동차 정비사코스(4년제), 차체 정비사코스(3년제)
 - 모터스포츠엔지니어링학과(3년제) : 학생들이 경주용 모터스포츠카를 직접 제작하여 경기에 출전도 했다함
 - 국제자동차공학과(3년제) 등등이 있었는데
- 짧게는 2년에서 4년까지의 자동차교육기간을 통해 자동차에 관한 정비에서 제작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고 있었다.
- 졸업 후 나고야시 인근에 있는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자동차, 스즈키자동차, 혼다자동차 등으로 100% 취업이 되고 있었으며, 본 의원이 방문했던 날 내후년인 2013년 취업을 위한 취업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 일본에서는 취업이 보통 2년 전에 결정 되어진다고 한다. 오늘의 취업 설명회는 1학년 학생들 또는 2년후에 졸업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설명을 하는 것이다. 2년 전에 이미 졸업 후의 진로가 결정되어 버리는 상황이니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나 취업에 관한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정말 부러웠다.
- 한국의 인하대학교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었으며 중일본자동차단기 대학 총장님께서 조만간 인하대학교를 방문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실습하는 학생들



취업설명회장에서



학생들이 스포츠카를 만들어낸 현장

4. 도요타시 도요타자동차공장 방문

- 나고야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쯤 소요되는 도요타시에 위치해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을 견학하였다. 미리 방문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도요타 자동차공장 본사부설 전시관인 도요타회관에서 최신 개발된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 모델인 "PRIUS" 관람하고, 같은 날 신청해 놓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2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 공장견학을 하였다.
- 공장안에서의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부공정에 관해서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었고 일본에서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회사로서 손색이 없는 규모의 회사였다.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최신 개발된 하이브리드자동차 앞에서



도요타 자동차 전시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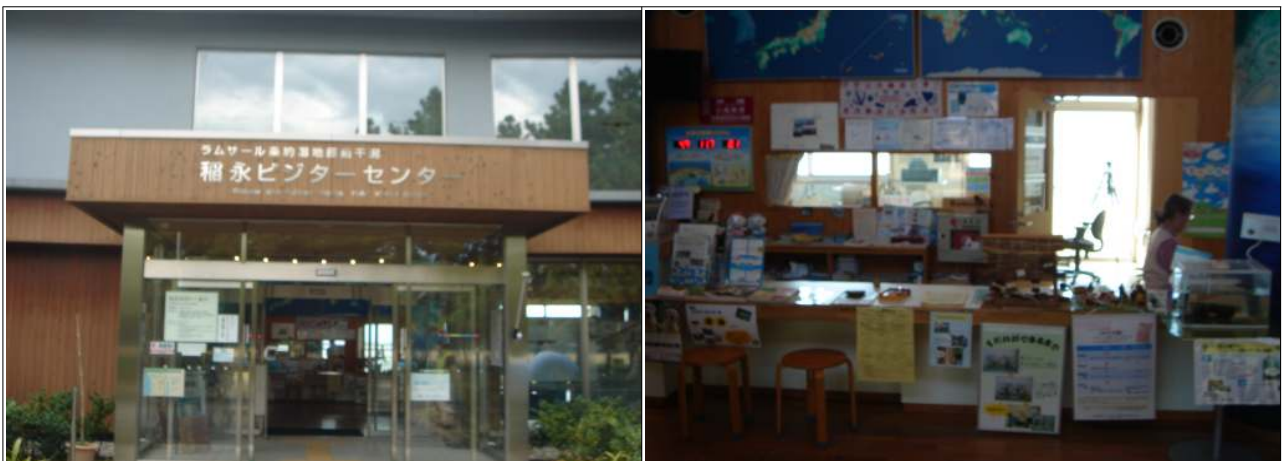


시사점 및 시책 제안 사항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화두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유입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 불리워 졌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교육열이 높은 교육환경(국립순천대학교보유)을 갖추고 있는 순천시이기 때문에 지역산업과 교육을 시책사업으로 접목시켜 우리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를 우리지역의 산업시설에 투입하는 정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하여 순천대학교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에서 개발한 마그네슘 관련한 자전거 산업 그리고 앞으로 신대지역에 새로 생겨나는 산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문제를 시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II. 순천만과 연계하여 나고야시 후지마에갯벌 방문

- 후지마에 갯벌은 대도시, 항만, 공업지대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주변지역이 대규모로 매립되고 매립되는 과정에서 갯벌부분이 아주 조금 남겨진 상황이었지만 300헥타르의 규모로 2002년 람사르조약에 가입되어 국제적인 철새도래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 후지마에 갯벌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철새보호를 위한 중요지역이기에 2002년 11월 일본 환경성에서도 '조수보호구'로 지정하고 갯벌을 포함한 중심부분은 '특별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갯벌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냥 바다만 보고 돌아왔다. 방문 시간대(오전 9시~ 오후 6시까지)에 물이 빠져 갯벌을 볼 수 있는 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방문했던 시기가 11월 중순 때라 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나는 시간대가 밤중이어서 유감스럽게 갯벌을 보지 못했다.
- 특이하게 후지마에 갯벌에는 일본 환경성에서 운영관리하는 비지터센터(체험관) 1개소와 나고야시에서 운영·관리하는 비지터센터(체험관) 1개소 합하여 2개소가 공존하며 관광객들을 맞고 있었다. 서로 필요에 의해 생겨났겠지만 결국은 같은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니 1개소로 합쳐서 운영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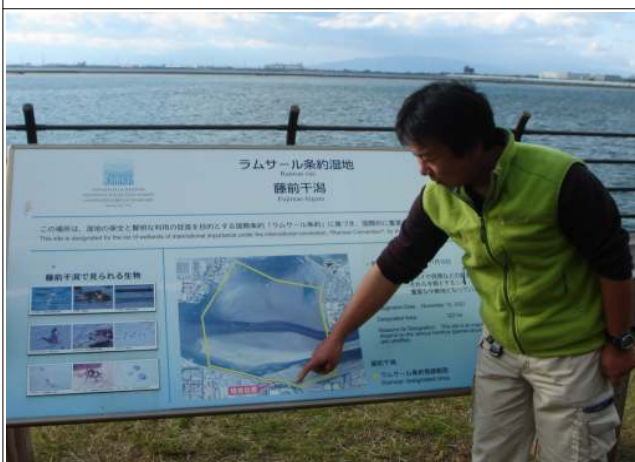
환경성 운영 비지터 센터

○ 환경성 쪽에서 관리하는 비지터센터에서 만난 환경성 직원 우메무라씨 안내를 받고 비지터센터를 둘러보며 설명을 들었는데, 규모는 순천만 보다 훨씬 작았지만 “전국 자연생물 순례 2010년 7월 21일 ~ 2013년 3월 31일까지” 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생태계의 소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지역 전국 84개방문지 주소를 카드에 적어주고 연계하여 방문 기념 흔적으로 스탬프를 카드에 찍는 것이다.

○ 우메무라씨는 그동안 순천만을 몇 차례 방문하여 순천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오는 12월 중순쯤 갯벌 체험단을 이끌고 순천만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고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지터센터



설명하고 있는 환경성 직원 우메무라씨

전국자연생물순례 스탬프 카드



시책 제안 사항

- 나고야의 후지마에 갯벌과 순천만은 환경조건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두 곳 모두 다 람사르조약에 가입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갯벌이며 서로 협조하며 지켜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관광 홍보에 관한 아이디어가 우리 순천시보다는 앞서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전국 자연생물 순례 스탬프찍기”는 무척 기발하고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아주 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 다음에 실시할 2차 프로그램에 한국의 순천만도 끼워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으며 추진해 볼 생각이다.

Ⅲ. 나고야시 문화의 거리 방문

- 나고야시 문화의 거리는 일본여배우 1호로 유명한 가와카미 사다유키의 저택과 전력왕으로 불리웠던 후쿠자와 모모스케가 살던 저택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기념관 형태의 주택이 몇 채 있는 거리로서 나고야시에서 “문화의 거리”라고 이름 붙여 놓았다.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 많은 기대감을 갖고 찾아갔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현장을 보고 실망했다. 나고야시 홈페이지에 문화의 거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옛날 유명인의 저택과 그 소장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최소한 문화의 거리라고 할 정도면 좀 더 많은 문화적인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후쿠자와 모모스케저택



가와카미 사다유키저택